

新左派運動에 관한 研究

教養科 副教授 金亮奕

I. 緒論

1. 問題의 提起

모든 인간들이 政治生活에서 취하게 되는 政治態度는 그들이 信奉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現狀에 대한 進步的 變化(Progressive Change)를 추구하거나 退步的 變化(retrogressive)를 지향하거나 또는 現狀을 固守하려는 諸理念의 複合體(Complex of ideas)를 이데올로기라고 할 때, 지금까지의 人類의 歷史는 諸이데올로기간의 對立과 갈등이 諸多而無休止로 계속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急進과 保守, 左派와 右派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인간은 合理的인 人間觀을 토대로 民主的인 制度와 節次를 발전시켜 왔으며, 그 理想이 되는 社會建設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現代社會는 科學과 技術의 발달에 힘입어 高度產業社會를 이룩하였지만, 반면에 고도의組織化와 複雜化에 따른 病理現象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人間다운 삶을 위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날 知識人的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특히 左派知識人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보다 중요한 것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歷史가 증명하듯이 마르크스가 말한 無階級社會의 到來라는 예언이 빛나갔음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理想과는 전혀 다른 소련의 共產主義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西歐產業社會와 蘇聯共產主義社會를 동시에 부정하는 새로운 思想的 傳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초까지 美國을 비롯하여 서유럽, 日本 등지에서 新左派運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新左派 이데올로기는 소비에트 마르크스主義와 歐美의 資本主義를 모두 否定하고, 現代豐饒社會 自體의 構造的 矛盾을 批判하며, 과격한 行動으로써 政治社會의 秩序의 變革을 시도하는 反體制運動의 발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問題는 이러한 新左派의 이데올로기가 豊饒를 謳歌하는 高度產業社會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것임을 간과한 채, 자칫하면 그들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는 우리의 社會에 그대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것은 到來할 社會에 대한 實現可能한 現實的인 代案을 제시하지 못한 채, 既成體制에 대해 現實批判的인 性格을 띠고 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學生·知識人們에게 신비한 매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올바른 認識과 批判的인 眼目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2. 研究方法

新左派運動을 社會運動의 하나로 볼 때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이 운동의 信念體系를 握해 볼 수 있다. 즉 모든 社會運動은 그構成員들이 직접적으로 政權獲得을 目標로 하지 않더라도 政治的 意味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데올로기의 社會心理的 측면에서 그運動의 政治的 性格을 千明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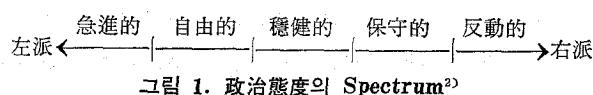
따라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그리고 社會運動으로서의 新左派의 急進性은, 우선 政治心理的인 離근이 필요하게 된다. 즉 急進의 이데올로기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는 新左派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諸이데올로기의 政治的 態度에 관한 전반적인 脈絡을 고찰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本論文은 먼저 일반적으로 急進이데올로기가 갖는 特性을 諸이데올로기 상호간의 離학에서 고찰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예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新左派 이데올로기의 急進성이 初期實證主義 社會學에 대한 批判 및 마르크스主義와 프로이드心理學의 結合에서 어떻게 비롯되고 있는가를 밝힌 후, 세번째로는 그러한 急進의 運動의 特徵을, 舊左派와의 比較의 側面과 運動展開樣相의 側面에서 살핀 다음, 마지막으로 運動의 急進性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안고 있는 問題點이 어떤 것인가를 지적하고자 한다.

II. 急進이데올로기의 概念

本章에서는 急進이데올로기의 일반적인 概念的 特性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政治的 스펙트럼에서의 그 위치를 살피고자 한다. 이데올로기는 여러 次元의 社會問題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價值定向과 態度에 의해 左派나 右派나 進步나 保守나 등으로 分類된다.¹⁾

右派이데올로기란 現狀維持의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이는 기존 政治, 社會, 經濟秩序를 수호하고 合理化하는 이데올로기로서 保守的 이데올로기라고도 불리운다. 左派이데올로기는 急進的 혹은 革命的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즉 기존의 모든 秩序에 광범한 變化를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中道派 이데올로기란 左右派 이데올로기의 中間形態로서 改良主義의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하나의 連續線上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다.



¹⁾ 左派니 右派니 하는 用語는 1789년 프랑스 國民議會에서 起源한다. 즉 의회가 열렸던 반원형 의회의장에서 의장을 중심으로 保守派는 의장의 오른편에 急進派는 左편에, 그리고 自由派는 中央에 위치함으로써 유래했다. Reo M. Christenson et al.,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 2nd ed., (New York: Dodd, Mead & Co., 1975), p.4.

²⁾ Leon P. Baradat, *Political Ideologies: Their Origins and Impact*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79), p.1.

위 그림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은, 急進이라는 用語가 혼히 左·右派의 極端主義者를 통털어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럼에서 보듯이 急進의이라는 용어는 左派極端主義者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左派急進主義 이 폐율로기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政治的 變化와 價値 (Change and value)에 관한 政治態度를 中心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變化의 側面에서 본 概念

變化에 대한 政治態度와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急進主義는 現存社會에 대한 極端의인 不滿으로 인해 이를 變化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요구를 提案하는 성급한 사람들의 이 폐율로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急進主義者들은 그 社會에서 즉각적이고 基本의인 變化를 選好한다. 즉 革命的 變化를 옹호한다. 그러나 모든 急進主義者들이同一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急進主義者들 사이에도 특정한 變化를 가져오기 위하여 채택한 方法에 따라 여러 集團으로 区分이 있을 수 있다.



그림 2. 變化方法에 따른 急進의 区分³³⁾

위 그림처럼 急進主義者들을 네 개의 小集團으로 区分하는 것은 단지 便宜上 정도의 차이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A集團은 急進 중에서 極左에 속하는 集團으로서 既存秩序에 극단적인 불만을 품고 있으며, 따라서 現體制가 그 根本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變化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暴力的手段에 의해 變化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社會가 너무 腐敗하고 邪惡하고 歪曲되어 있어서 이를 淨化하기 위해서는 불태워 버려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社會가 暴力이 아닌 다른 方法에 의해 變化가 될 경우에는 改革主導勢力이 조만간 現體制를 부폐시켜 왔던 바로 그 張本人들과 妥協함으로써 새로운 體制를 또다시 汚染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既存體制를 불태워 버리고 그 잣더미 위에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社會主義者와 資本主義者 간에는 결국 暴力이 不可避하다고 주장하는 마르크시스트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⁴⁴⁾

B와 C集團은 既存體制에 不快와 拒絕을 맛본 사람들이다. 그러나 政治的 스펙트럼에서 그들의 위치가 現狀点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極端論은 다소 누그러진 편이다. 暴力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B와 C 상호간에도 다르다. B集團은 暴力이 唯一한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나 가장 적절한 方便이라고 믿는다.

C集團은 暴力使用을 매우 달갑게 여기지는 않지만 最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찬성

³³⁾ Ibid., p.6.

⁴⁴⁾ Max Marx, *Modern Ideologi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33), pp.38~51 참조.

한다. 現體制에 挫折感을 느끼기 때문에 根本의이며 즉각적인 變化를 원하기는 하지만, 暴力은 다른 가능한 모든 方法이 도저히 불가능할 때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集團은 不注意한 관찰자들에 의해서는 急進으로 分類되지 않기도 한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도 上述한 A, B, C 集團들처럼 社會의 基本적이고 즉각적인 變化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의 政治的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暴力使用을 단연코 거부한다. 이러한 態度의 典型的 인例는 印度의 간디(Mahatma Gandhi)와 美國의 킹(Martin Luther King) 牧師의 生涯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暴力이라는 用語는 좁은 意味에서이다. 즉 暴力이란 人命이나 財產에 危害를 加하거나 損害를 입히는 行爲를 意味한다. 따라서 急進主義者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暴力의 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自國을 위한 戰爭을 거부하는 것은 規範과의 급격한 斷絕이며, 그러므로 急進的 立場이지만 暴力의인 입장은 아닌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사람들은 暴力에 呼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急進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急進主義者들은 政治的 스펙트럼의 左派極端主義에 속하며, 既存政治體制에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體制의 根本의 즉각적 변화를 주장한다. 따라서 革命的이다. 대부분의 急進主義者들은 既存法律에 거의 신뢰나 support를 하지 않지만, 政治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暴力を 사용하는 集團은 소수이다.

2. 價値의 側面에서 본 概念

前述한 政治的 變化는 그 自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期待되는 結果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政治的 價値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政治的 價値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은 매우 廣範하고 複雜하므로 여기서는 皮相的으로나마 財產權(Property rights)과 人權(human rights)간의 葛藤으로 취급하는데 그친다.

人權을 財產權과 區分된 별개로 취급하여 政治的 스펙트럼에서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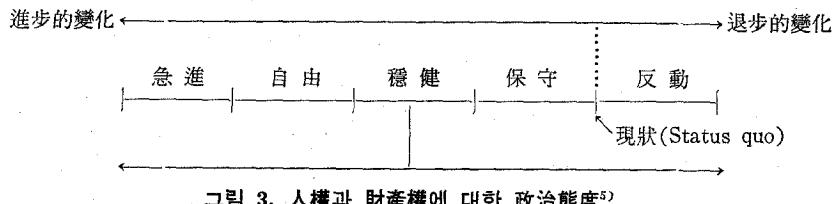


그림 3. 人權과 財產權에 대한 政治態度⁵⁾

그림에서 보듯이 左向的 사람들은 人權에 最大의 強調点을 두고, 右向的 사람들은 財產

⁵⁾ Baradat, *op.cit.*, p.19.

權을 強調한다. 예컨대 黑人에게 물건을 파는 것을 拒否할 權利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質問을 自由主義者에게 던졌다며 그는 黑인이 물건을 살 돈을 갖고 있는 한 장사꾼은 팔기를 거부할 權利가 없다고 서슴없이 대답할 것이다. 自由主義者들은 黑人도 다른 人種과 근본적으로 平等하기 때문에 黑人에게도 他人과 同等한 待遇를 받을 權利가 있다는 假說을 믿는 까닭이다. 즉 그들은 명백히 人權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反面에 같은 質問이 保守主義者에게 주어진다면 그 대답은 反對가 될 것이다. 그들은 人種의 편견 때문에 特定人에게 자기 財產販賣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그렇게 할 權利가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 물건은 팔고자 하는 사람의 財產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保守主義者들은 人權과 財產權의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財產權을 人權보다 우위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는 極右側은 人權을 全面的으로 否定하며, 極左側은 財產權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음을 알게 된다. 極左에 속한 마르크스는 共產主義에 관한 그의期待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한 바 없으나 ‘유토피아는 私有財產과 不平等을 절대로 認定하지 않는 民主的인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반면 極右에 속하는 뮤솔리니(Benito Mussolini)는 사람들이 民族國家와 깊이 관련되지 않는 한 어떤 正義도, 어떤 權利도, 또 人間의 存在理由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⁶⁾ 個人은 오직 國家의 善을 위해서만 機能할 뿐이며, 그렇지 못하면 누구라도 除去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左派의 特性을 명백히 하기 위해 右派와 비교하여 각기의 價值觀에 근거한 諸目標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左派는 合理主義(rationalism)에 근거하는데 비해 右派는 非合理主義에 근거한다. 마르크스는 결국 科學的方法과 產業革命의 產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理論은 그 前時代의 空想的 社會主義에 反對하여 혼히 科學的 社會主義라고 불리운다. 반면 뮤솔리니는 合理主義를 거부하여 “생각하지 말고 느끼기만 하라”고 했고, 히틀러는 知性과 客觀的인 科學을 공공연히 비웃고 조롱하였다.

둘째, 左派는 人類平等主義(equalitarianism)의in에 반하여 右派는 엘리트主義的(elitist)이다. 社會主義는 일반적으로 左派經濟理論으로 잔주된다. 그 主要目標는 가진 자와 못 가진자의 간격을 줄이는 것으로 社會를 水平化하고 物質的으로 平等化하려는 경향이 있다. 마르크스는 個人 단독으로는 아무 것도 所有해서는 안 되는, 따라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共有해야만 되는 全體主義的 社會主義形態를 想定했던 것이다. 반면에 資本主義는 保守的 經濟體制이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 時代의 資本主義는 封建主義의 現狀維持에 대한 自由主義的挑戰을 의미했었지만, 오늘날 資本主義는 現狀의 擁護者로 변신했다. 그러므로 資本主義國家에서의 이 體制에 대한 支持는 複合적으로 保守的立場인 것이다.

⁶⁾ Christenson, *op.cit.*, pp.67~78.

세계, 左派는 社會가 平準化되기를 慶賀하는데 비해, 右派는 社會에 있어서 政治的 階層化를 選好한다. 人類平等에 대한 左派의 態度는 民主的 體制에 爭對된다. 革命直後엔 프롤레타리아가 獨裁에 의해 지배해야 한다고 했던 마르크스도 결국 民主的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體制를 주장했고, 個人的 自由는 國家가 소멸될 때 最高潮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반대로 右派는 人間이란 다소 動物的이며 不平等하고 指導者를 諸多로 하는 存在라고 믿기 때문에 優秀한 者는 統治하고 劣等한 者는 服從하는 高度로 階層化된 社會를 選好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左派는 國際主義(internationalism)의이고 右派는 民族主義(nationalism)의이다. 左派는 모든 사람들이 兄弟姊妹이고 國境이란 人爲的인 것으로서 不必要한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마르크스는 勞動者에겐 祖國이 없으므로 社會主義體制들 사이의 國境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반면에 右派는 한 國家內에서도 個人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國家와 國家간에도 相異性이 있음을 강조한다. 인간이 자신의 値値에 따라서 社會內에서 일정한 階層에 속하게 되듯이 어느 한 國家의 他國家에 대한支配도 마침내 一國에 의한 完全征服이 完成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이다.

III. 新左派이데올로기의 形成背景

1. 時代的 背景

新左派(the New Left)라는 概念은 학술적으로 엄밀하고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그 運動이 너무나 無定形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원래 新左派라는 말은 1950년대 末 영국에서 생겨났다. 당시 영국에서 창간된 思想運動雜誌인 「New Left Review」誌⁷⁾에서 처음으로 등장된 단어인데, 1960년대 初에 美國에서는 舊左派(old Left)의 打到와 “進步的 自由主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하여 美國의 젊은 新左派信奉者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⁸⁾ 이렇게 볼 때 新左派는 舊左派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구좌파에 실망함으로써 5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政治的 傾向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데올로기 내지 運動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時代的 狀況을 중심으로 살피기로 한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共產黨宣言」에서 資本主義社會는 그 内部의 矛盾에 의하여 菲運적으로 消滅하고 社會主義社會로 移行되어 잔다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資本主義는 몇 차례의 危機를 겪기는 했으나 社會主義社會로 移行되지 않았다. 또한 戰後 지속적인 繁榮

⁷⁾ 이 잡지는 스탈린 格下運動과 형가리 事件 등이 유럽의 左派運動에 심각한 충격을 미치자, 舊左派(Old Left)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社會主義에로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창간된 것 이었다.

⁸⁾ Perry S. Cohen, *Jewish Radical and Radical Jews*(London: Academic Press, 1980), p.14.

과 安定을 구가하는 ‘豐饒한 社會’와 福祉社會의 出現은 勞動者階級의 革命意識을 反비시 켜 버렸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資本主義崩壞에 관한 예언에 기초를 둔 社會主義的政治宣傳은 그 說得力を 상실하고 말았다. 즉 古典的 마르크스主義를 적용하기에는 더 이상 現時代的 狀況이 마르크스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變化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繁榮과 安定을 구가하는 先進資本主義의 풍요로운 社會 속에서 또 다른 社會構造의 矛盾과 不條理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現代產業社會가 보다 官僚化되고, 또 高度로合理화 및 科學技術化됨으로써 人間社會를 무서울 정도로 非人間化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고도로 發達된 人間統制技術은 거의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認識할 수 없을 정도의 精緻한 手法으로 人間個人의 自由를 억압하고 인간의 理性的 批判的自己主體的思考를 외해하였으며, 또 科學技術主義나 日常化된 能率의 강조를合理화하는 새로운 價值體系를 造成, 被支配者의 同意없이 社會全體에 부과하고 유도하여 人間社會를 극도로 劍一化시킴으로써 人間性喪失의 절대적 危機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⁹⁾

또 한편으로는 마르쿠제(Herbert Marcuse)가 「소비에트마르크스主義」¹⁰⁾에서 밝힌 바와 같이 東歐의 共產主義社會에서도 對西方과의 對立이 同盟體制를 강화시켰고 西歐가 數世紀에 걸쳐서 이룩한 近代化를 短時日內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產業化는 人間解放이라는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궁극적인 目標를 폐퇴시킴으로서 社會를 全面管理하는 官僚의이고 經濟의인 마르크스主義는 거의 완전한 摧取의 道具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56년 蘇聯共產黨 第26次大會에 있어서의 스탈린 批判은 社會主義의 祖國 蘇聯을 감싸고 있던 神話를 베일하에 폭로함으로써 社會主義를 지지하던 많은 知識人們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先進資本主義의 풍요로운 社會 속에 만연되는 個人的自由抑壓, 非人間化에 대한 반발과 극히 왜곡되고 教條化된 마르크스主義下에서 자행되는 社會主義 既存體制에 대한 환멸 속에서 많은 批判的 知識人們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모색과 自由로운 社會로의 전환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歐美의 褊은 知識人, 學生들은 既存文化의 위선과 既成의 權威에 도전하게 되었고 新左派로 연계된 것이다.

2. 思想的 基盤

소련의 마르크스主義와 歐美의 資本主義를 모두 부정한 批判的 知性들은 人間의 解放과 人間疎外의 克服을 강조한 青年마르크스에 관심을 갖고 이를 再構成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英·美·西獨에서는 프랑크푸르트學派의 프로이드 左派와의 思想과 결합되어 가고, 佛에서는 實存主義左派와의 思想과 결합되며, 伊에서는 그람시의 부흥으로 이어져 갔다.

⁹⁾ Max Mark, *op.cit.*, pp.210~212.

¹⁰⁾ Herbert Marcuse, *Soviet Marxism*.

1) 마르크스와 프로이드 心理學의 結合

歐美 先進產業國家에서의 人間解放을 위한 투쟁과 관현하여 新左派가 도입한 急進的 傳統은 라이히(Wilhelm Reich), 프롬(Erich Fromm), 마르쿠제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學派, 프랑스의 超現實主義的 傳統과 르페브르(Henri Lefebvre)를 위시한 革命的 마르크스主義者들의 批判的 思潮라고 하겠다.¹¹⁾ 이들의 思想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는 어렵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일상적인 삶에 대한 批判으로서 마르크스主義를 재구성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러한 理論的 革新의 필수적인 道具로서 精神分析을 채택함으로써 新左派運動을 특징지우는 핵심적인 문제들과 관심사를 예견하였던 것이다.¹²⁾

오스본(Ruben Osborn)은 마르크스主義와 프로이드心理學의 精神分析이 각기 다른 方式으로 研究를 진행시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人間의 삶 속에서 非合理的인 要素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데 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마르크스主義는 科學이 人間에게 가져다 준 技術工學의 發見의 結果들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社會秩序의 非合理性를 研究하는 것이며, 精神分析學은 인간이 자신들의 福祉를 위하여 科學을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하고 合理的인 存在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人間精神의 非理性的 힘을 研究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들을 마르크스主義의in 分析方法과 精神分析學의in 分析方法을 동시에 추구할 때 그러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客觀的in 政治的·社會的 요소들과 아울러 個人的이고 主觀的인 요소도 동시에 파악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¹³⁾

또한 그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社會的·政治的 갈등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獨占資本主義가 지니고 있는 疎外의 蔓延이라는 병폐라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前提條件은 資本主義體制에 있어서의 抑壓과 疏外의 性質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人間本質에 대한 精神分析學의 接近方法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革命時代로부터 이어 내려 온 마르크스主義의 不適切性과 貧弱性을 지적한다. 즉 마르크스가 理論과 實際를 結合하고, 個人的인 것과 政治的인 것 사이의 分離를 극복하고자 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古典的 마르크스主義者들은 人性의 構造에 관한 문제를 무시하고 모든 主觀的 現狀마저도 단순히 機械的인 經濟的 및 社會的 決定論으로 환원시켜 버림으로써 1920년대 革命에 의해 치유하려던 병폐와 위험들을 막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그러한 폐해를 자초하게 되었다고 비난한다.

따라서 新左派 運動家들은 마르크스主義가 時代의 革命政治에 必要條件은 되지만 充分條件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個人的的心理的 解放이 없는 社會主義革命을 통한 社會變化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神秘化過程이거나 아니면 似而非人民主義的 神話와

¹¹⁾ Bruce Brown, *Marx, Freud, and the Critique of Every Life Toward a Permanent Cultural Revolution*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73), p.9.

¹²⁾ Ibid., p.11.

¹³⁾ Ruben Osborn, *Marxism and Psychoanalysis* (New York: Dell Publishing Co. Inc., 1965), pp.125~126.

美辭麗句로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抑壓類型이 될 뿐이라고 하였다.¹⁴⁾

바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마르크스主義者들과 1960년대의 新左派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성이 이러한 “大衆社會의 수준의 自由”와 “個人的 수준의 自由” 사이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1920, 1930년대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이 人性의 構造를 무시하고 “個人的 수준의 自由”를 고려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新左派에 의해 비난받았지만, 그렇다고 新左派가 마르크스主義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個人的인 것과 政治的인 것 사이의 二分法을 극복함으로써 現時代에 호응하는 辨證法의 統合을 시도했을 때이다. 즉 마르크스主義의 批判的 經濟意識과 日常生活에 대한 力動的 理解, 그리고 個人的 人性에 대한 心理的 發展을 條件化시키는 힘을 융합시킨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르쿠제는 「에로스와 文明(Eros and civilization)」에서 프로이드思想의 悲觀主義와 保守主義의 저변에는 숨겨진 批判的이고 急進的인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統合을 시도한다.¹⁵⁾ 그는 性의 衝動의 抑壓이 人間不幸의 근원이라는 프로이드의 입장은 인정하였으나, 프로이드가 抑壓을 文明發達을 위하여 人간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댓가로 생각한 반면, 마르쿠제는 제도적인 장치를 변화시킨다면 人간은 自然的 資質에 의하여 온갖 가능한 快樂을 贸易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¹⁶⁾ 즉 프로이드는 人間의本能을 억압하고 강제함으로써 社會的으로 유용한 勞動이 이루어지고 文明이 그러한 희생 위에 세워진다는 입장이었으나, 마르쿠제는 人間本能을 解放시킴으로써 유용한 勞動이 이루어지고 文明이 蒼월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衝動의 抑壓이 勞動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支配를 目的으로 한 社會的 組織에서 생겼기 때문에 過剩抑壓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疎外된 勞動이라는 經濟的 條件과 支配라고 하는 政治的 條件을 變革함으로써 抑壓 없는 文明이 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勞動과 유희가 일치되는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의 결합은 新左派가 추구하는 “삶의 質(quality of life)”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位階的 權力의擴散에 의한 自律性의 抹殺에 대한 抗議, 權威主義에 反對하는 學生運動, 즉 소위 青年文化, 先進產業國家에서 植民化된 小數派의 暴動, 性解放과 女性運動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物化’되고 疏外된 世界에 대하여 반항하는 과격한 大衆運動으로 표출되었다.

2) 初期實證主義 社會學에 대한 批判

新左派運動에 思想의 基盤이 된 또 하나의 側面은 1950년대까지 最高度로 發展했던 實證主義社會學에 대한 批判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 社會學의 傾向에 새로운 變化가 일어나기

¹⁴⁾ Bruce Brown, *op.cit.*, pp.17~21.

¹⁵⁾ Herbert Marcuse, *Eros and Civilization* (Boston Beacon Press, 1966), pp.11~20.

¹⁶⁾ Max Mark, *op.cit.*, p.216.

시작하였는 바, 즉 그 이전까지의 實證主義 또는 科學主義의 適合性 대지 意味適合性에 대한 강조, 그리고 價值中立性(the value free)의 原則에 대한 批判 등으로 나타났다.¹⁷⁾ 이러한 주장은 現代產業社會가 보다 官僚化되고 보다 科學技術化되어 非人間化되어 간다는 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美國에 있어서는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自由主義社會學者들의 생각이 支配的이었다. 그들은 物理的 進步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實力主義, 機會의 平等, 思想과 表現의 자유로운 傳播, 人種統合, 자애로운 聯邦政府, 冷戰 및 集團安保 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 이를 自由主義者와 舊左派(the old left)로 알려진 世代를 保守勢力으로 내몰고 急進主義社會學이 대두하였다. 急進社會學者들은 反共主義를 冷戰時代의 遺物로 배격하고 부르조아적인 物質主義를 추방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美國社會를 帝國主義, 人種主義, 그리고 抑壓的인 社會라고 規定하였다. 그들은 現代產業社會는 非人間이므로 暴力과 革命까지도 不辭하는 政治的 手段을 사용하여 그 構造를 變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社會學의 知識의 유일한 檢證은 實行에 있으며, 必要한 變動을 일으키는데 얼마만큼 기여하는가에서 그 知識의 適合性을 찾으려 하였다. 또한 한층 더 人間的이고 평등한 社會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行動主義(activism)와 大衆參與의 구실을 중요시하였다.¹⁸⁾

美國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獨逸에서의 實證主義 論爭과 그 脈絡을 함께 한다. 實證主義論爭에서 아도르노를 통해 대변된 프랑크푸르트學派의 方法論은 歷史性, 辨證法의 發展 및 總體性을 特徵으로 하였다. 즉 모든 社會的 主要事實과 分析可能한 구체적 事例들은 모두 歷史的 產物이라는 것과 그것들은 辨證法의 도움으로 해석되고 폭로되며, 어떤 社會的 事實을 고집시켜 부분적으로 調查해서는 안되고 社會·經濟的인 總體의 脈絡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批判理論은 “解放”과 “抑壓”이라는 二分法的 思考方式으로 전개되어 敵과 同志를 尖銳化하고 人間의 總體의인 해방을 요구하기 위하여 社會運動을 벌였다. 1968년 學生들의 支持를 받은 프랑크푸르트 學派의 社會學大會는 “後期資本主義批判”을 主題로 과격한 성토를 벌였다. 이들은 理論의 實踐性을 강조함으로써 역시 急進的 社會運動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것이다.¹⁹⁾

이처럼 新左派에게 理論的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方向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프랑크푸르트學派였던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르쿠제의 영향은 대단하였는 바, 개별적으로 마르쿠제에 대해서 친단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마르쿠제는 哲學的으로는 헤겔의 辨證法, 社會理論으로는 마르크스의 疎外된 勞動의 思想, 文化的으로는 프로이드의 에로스의 思想을 통합하여 現代의 高度產業社會와 그 文明에

¹⁷⁾ 李奎浩 編, 「社會科學의 方法論」(서울: 玄岩社, 1974), pp.164~168.

¹⁸⁾ 金環東, “循環, 累積, 斷絕의 陳痛: 現代社會學의 理解,” 美國學 第2輯 (서울: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1978), pp.6~8.

¹⁹⁾ 申一澈 編, 「프랑크푸르트學派」(서울: 청람문화사, 1981), pp.30~38.

대한 辨證法의 否定의 哲學理論을 전개시킨다.²⁰⁾ 그는 「理性과 革命(Reason and Revolution: Hegel and the Rise of social Theory, 1941)」²¹⁾을 통하여 否定과 批判의 精神을 강조하는 데, 이는 본래 17世紀 이후 대두된 啓蒙思想의 핵심으로서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W. Adorno)는 이를 “啓蒙的 理性”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헤겔 死後 理性을 既定事實의 權威에 종속시키려는 肯定의 哲學인 實證哲學이 출현하였고, 여기서 科學主義라는 미명하에 目的이나 理念에 대한 批判意識이 결여된 “道具的 理性”이 나타났다고 한다.

마르쿠제는 理性이 科學技術文明의 발달로 말미암아 道具的 理性으로 전락하였고, 先進 產業社會에서 勞動者들의 革命性이 둔화되었음과 관련하여 「一次元的 人間(One-Dimensional Man, 1964)」²²⁾을 전개해 나간다. “一次元性”이란 古典的 意味에서의 勞動階級의 革命的 實踐은 물론, 헤겔과 마르크스의 否定의 哲學의 특징인 理性과 現實의 多次元의 辨證法의 抑壓을 뜻한다. 따라서 그것은 哲學의 理性으로는 實證主義의 승리를, 이데올로기적으로는 技術的 合理主義의 支配를, 日常的으로는 근시안적이고 천박한 享樂主義를 의미한다. 이러한一次元的 思惟의 단면에 대하여 마르쿠제는 批判의이고 부패하지 아니한 순수한 形태의 예술이 지니는 否定의 契機를 보존할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一次元的 人間」 속에 내포되어 있던 폐시미즘이 마르쿠제의 뜻과는 다르게 과격과 新左派運動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다. 新左派의 反體制運動家들은 마르쿠제를 마르크스, 毛澤東에 이어 3M의 하나로 섬기면서 社會革命家로 추종했지만 마르쿠제는 결코 行動家가 아니었으며, 그는 모든 政治的 革命에 앞서 새로운 인간의 創造를 주장한 사상가였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暴力革命을 배격했으며 意識革命을 강조하였다. 마르쿠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20世紀 후반에 急進的 理想을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상에서 볼 때, 결국 新左派의 思想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던 것은 마르크스主義와 함께 당시의 機能主義 實證社會學에 대한 批判을 제기하였던 急進社會學 및 批判理論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新左派運動의 特徵

1. 舊左派와의 差異點

前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新左派運動은 諸急進的 이데올로기가 相互複合의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理念的 바탕에는 現在와 過去의 思想들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

²⁰⁾ 金涼鎬, 「疎外時代의 哲學」(서울: 文音社, 1981), p. 46.

²¹⁾ Herbert Marcuse, *Reason and Revolution* (Boston: Beacon Press, 1960).

²²⁾ Herbert Marcuse, *One-Dimensional Ma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4).

다. 그렇다면 新左派運動의 特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新左派가 그들 스스로를 既存急進勢力(舊左派)과 구별지을만한 어떤 特徵들을 新左派運動 속에 내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新左派運動은 프로레타리아的 運動이 아닌, 주로 學生들과 젊은 知識人們의 運動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²³⁾ 즉 新左派는 약간의 예외적인 그룹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도 소위 革命的 劢力으로서의 勞動者階級에 발을 붙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新左派는 마르크스적 意味의 階級概念으로서는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新左派가 이처럼 傳統的 革命勢力으로서의 勞動者階級에서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達한 先進產業社會에 있어서 勞動者들이 이제는 變革하는 劢力이 아니라 體制를 유지하는 保守的 力으로 타락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 나온다. 사실 傳統的으로 定義되어 온 대부분의 勞動者階級은 이 運動에 대해 反對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특히 美國社會에 있어서 社會的·民主的 路線을 견지해 온 勞動組合은 敵意的인 態度를 갖고 대했던 것이다. 新左派들은 대개 自意識이 강한 人種의 少數나 블만을 나타내는 中產層으로부터 충당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急進的인 對決의 戰場은 工場이나 길거리의 바리케이드가 아니라 大學의 캠퍼스와 政治的인 集合場이었던 것이다.

둘째, 이 運動은 대부분 後進國보다는 豐饒를 誉歌하는 先進國에서 일어났으며, 舊左派의 現在體制에 대한 批判이 주로 政治·經濟問題에 집중되었는데 반하여 新左派는 政治·經濟問題에 뭇지 않게 社會·文化·教育問題에도 큰 關心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傳統的 마르크스主義와는 달리 現代資本主義國家의 先進產業社會는 보다 풍요해지고 보다 더 개량된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이러한 先進產業社會는 전체에 있어서 非合理的이며 抑壓的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先進產業社會의 合理性은 인간의 소망과 관심의 자유로운 發展을 저해하며, 오늘날의 平和한 끊임없는 戰爭의 위협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으며, 經濟的인 成長은 生存競爭을 해결할 참된 가능성을 억압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 이기 때문이다.

즉 新左派는 先進產業社會에 단연된 社會的 不條理에 대한 批判的 力으로서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言行이 일치하지 않는 既成世代의 不道德性, 전쟁준비와 그에 대한 과중한 부담, 官僚制化, 빈궁한 생활, 高度產業社會에서의 個人的 無力感, 物質萬能主義, 무모한 競爭, 大學의 組織과 役割에 대한 不信 등을 產業社會의 不條理로서 지적한다.²⁴⁾ 따라서 그들의 관점은 단순한 政治的 次元을 초월해서 전반적인 社會改革, 文化革命의 次元으로까지 확대·심화된 것이다.

세째, 新左派가 비록 마르크스的인 言語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 運動은 傳統的인 마르크스—레닌主義哲學의 단순한 擴大는 아니었다. 그들의 일부가 마르크스主義에 관

²³⁾ Max Mark, *op.cit.*, p.213.

²⁴⁾ Max Mark, *op.cit.*, p.211.

여, 심지어 적극적으로 共產主義原理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 수는 극히 적었으며, 그들의 근본적 동기가 불분명할 때가 많았던 것이다.

新左派는 마르크스의 理念들, 특히 資本主義를 批判하는 觀念들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그들의 哲學的 기반은 거의 辩證法의 唯物論에 토대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그것과 訣別했던 것이다. 新左派思想은 經濟的 還元主義의 一形態는 아니었던 것이다.²⁵⁾

즉 新左派는 統合되고 合理化된 改革圖式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가지의 主義들이 혼합된 채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自由主義的 概念을 강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摧取, 抑壓, 階級鬭爭, 帝國主義 등 마르크스主義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자도 있었다. 따라서 毛澤東과 그의 文化革命이 예찬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혼합적 성격 때문에 근본적으로 新左派는 엄밀한 意味에서의 마르크스主義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新左派를 특징지운다면 無政府主義 또는 무정부주의적 신디칼리즘이라고 Bluhm은 지적한다.²⁶⁾

네째, 新左派의 急進主義는 初期共產主義와는 달리 既存社會를 궁극적으로 顛覆시키려고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다른 강대국에 충성을 의도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들은 既存社會內에서의 社會·經濟의인 急進的 體制變化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그런데 궁극적인 目標가 아닌 方法面에서 봄 때 舊左派運動은 政權獲得을 위한 理論的 體系를 가지며 공인된 戰略戰術과 오랜 歷史와 傳統을 갖는 政治勢力과 組織을 갖고 있다. 그러나 新左派運動은 體系化된 理論體系와 공인된 戰略戰術 그리고 組織化된 势力組織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運動은 간헐적이며 산발적인 批判·抵抗運動이다. 즉 前者가 革命과 政權을 위한 영속적인 手段的 集團行爲(instrumental collective behavior)라면 後者는 간헐적인 感情表示行動(expressive collective behavior)이다. 또한 體制內에서의 變化를 추구하는 左派自由主義者들은 주요한 社會變化 手段으로서 代議政治制度와 같은 既存의 社會的 規範을 인정하는 반면 新左派는 抗議, 示威, 破壞 등 物理的 暴力を 수반한 直接的 行動을 강조한다.

다섯째, 新左派는 소련의 마르크스主義와 資本主義를 모두 否定한다. 그들은 資本主義는 물론 共產主義에 대해서도 現代產業社會의 官僚化된 경향을 공격하고 蘇聯을 비롯한 共產國家의 全體主義獨裁體制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抵開發의 共產主義國家의 指導者 毛澤東, 胡志明, 카스트로 등을 송배한다.

이와 같은 既存의 左派와는 다른 特徵들을 내포한 채 1960년대부터 1970년대 初까지 서유럽, 日本 등지에서 일어난 知識人, 大學生들의 反體制抵抗運動인 新左派運動은 統一된 理念과 指導體系를 갖춤이 없이 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일어났다.

²⁵⁾ Donald A. Zoll, *Twentieth Century Political Philosoph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4), p.156.

²⁶⁾ William T. Bluhm, *Ideologies and Attitudes: Modern Political Culture* (New Jersey: Prentice-Hall, Znc., 1974), pp.179~181.

2. 運動展開의 樣相

新左派運動도 처음에는 體制變革을 추구하는 데 있어 平和的이며 非暴力的方法을 주장하였다. 즉 體制內의 여러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그들이 경험한 自由主義的 漸進主義에 대한 환멸은 그들로 하여금 直接的이고 行動的인 方法, 즉 革命에의 호소라는 特徵을 나타내게 하였다. 따라서 暴力과 武器, 犀人과 放火 등을 수반하는 新左派運動의 急進化는 결국 社會的인 비난과 함께 처음에 이 운동에 동조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이 운동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 新左派運動이 1970년대 초에 접어 들어 점차 시들어 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新左派運動의 특징을 그 運動展開樣相의側面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맥퍼슨(William Mcpherson)의 見解를 살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는 美國에 있어서 新·舊左派의 變遷過程에서 대두되었던 構成要素들과 그것을 比較 分析하였다.²⁷⁾ 이는 다음 表1과 같이 정리·대조될 수 있다.

表 1. 美國의 急進主義와 保守主義運動의 構成要素 比較

	Radicalism	Conservatism
old	1. 理想主義(Idealism)와 英雄主義(Heroism) 2. 分派性(Factionalism) 3. 國際主義(Internationalism) 4. 傳統文化와 社會倫理에 대한 갈등	1. 勞動倫理 2. 國家統制的 經濟計劃拒否 3. 反知性主義一人民主義(Populism) 4. 反共主義
new	1. 豐饒社會批判 2. 外交的 軍國主義拒否(反戰運動) 3. 學園自由化 4. 傳統文化批判 5. 人種·人權問題	1. 召命意識 2. 民族主義 3. 大學(青年)文化運動 4. 土俗信仰·傳統文化 5. 社會秩序 및 凈化

위 表에서도 시사하는 것처럼 新左派運動은 社會的 諸事件과 관련되면서 民權運動, 反戰運動, 反核運動, 學園改革運動, 豐饒社會批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들은 불세비 키처럼 어떤 革命의 方法을 고안해 낸 것은 아니지만 대중에 기반을 둔 政治運動을 전개함으로써 社會變革을 기도했던 것이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諸特徵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스튜던트 파워(Student Power)

역사적으로 學園運動은 革命運動의 始發로서 나타난 적이 많았다. 歐美의 學生運動의 전

²⁷⁾ William Mcpherson, *Ideology & Change: Radicalism and Fundamentalism in America* (Palo Alto, California: National Press Books, 1973), pp.3~62.

정한 目的은 大學自體의 改革보다는 大學을 全體社會革命의 出發點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²⁸⁾ 1960년대 美國의 스튜던트 파워運動도 처음에는 학생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決定過程에 학생들이 참여할 權利를 뜻했으나 나중에는 美國社會를 뒤흔드는 社會運動으로 發展하였다. 즉 월남戰을 계기로 하여 美國의 褊은이 들에 대한 徵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新左派運動은 學園內로 옮겨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過激派學生들은 學園內의 문제 뿐만 아니라 美國의 傳統的 價值에 대한 挑戰과 經濟問題, 教育改善, 女權伸張, 外交政策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制度上의 根本的 改革을 주장하였다.²⁹⁾ 이러한 大學의 騷擾事態는 1968년에 절정에 도달하여 人種差別, 帝國主義 등의 문제까지 들고 나와 既存體制反對運動으로 발전하였다. 즉 초기에는 非이데올로기的(non-ideological) 혹은 反이데올로기的(anti-ideological) 抵抗運動을 표명했던 많은 新左派學生運動이 自由主義의 社會主義를 주장하고, 資本主義와 官僚制에 반대하는 잇슈로부터 시작하여 人權問題, 黑人問題, 學內言論問題, 貧困問題, 越南戰反對, 徵兵反對, 新帝國主義反對 등 과격한 社會改革運動으로 변모되었던 것이다.³⁰⁾

獨逸에서도 1968~69년에 大學의 政治化가 절정에 이르렀고 가장 과격했던 獨逸社會主義學生聯盟(SDS)는 資本主義, 軍國主義, 反共主義, 警察의 殘忍性, 自由의 抑壓, 人種差別主義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¹⁾ 특히 獨逸에서는 1967년 示威에서 한 학생이 경찰의 총탄에 희생됨으로써 暴動으로 변했고, 1968년 칼 마르크스 탄생 150회를 기념하여 “復活節 테모”를 감행하면서 新·舊時代批判, 反權威主義教育, 第3世界, 周邊集團, 女性解放 등의 主題를 크게 부각시켰다.³²⁾ 그리고 大學改革의 내용으로는 學生組合, 學校行政擔當者, 教授 등의 각 집단이 각각 특수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三者同等權法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³³⁾ 이러한 현상은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의 學生運動에 대하여 아담스(George Adams)는, 大學生들은 大學이 人間精神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既存의 社會經濟的 構造를 유지하게 될 技術人과 官僚를 양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大學은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大學이 奉仕하는 社會의 延長이며 道具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學生들의 暴動은 그 自覺과 目標가 확대된다고 하였다.³⁴⁾ 또한 오늘날의 大學을 이데올로기의 產室인 동시에 이데올로기 訓

²⁸⁾ William Lutz and Harry Brent (eds.), *on Revolution* (Cambridge,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Inc., 1971), p.294.

²⁹⁾ 朴稚榮, “美國에서의 스튜던트파워,” 「國際問題」, 1981년 3월호, pp.29~30.

³⁰⁾ Percy S. Cohen, *op.cit.*, pp.16~23.

³¹⁾ *Ibid.*, pp.62~64.

³²⁾ 申一澈編, 前揭書, pp.136~137.

³³⁾ 鄭用吉, “政羅巴 學生運動의 實相,” 「國際問題」, 1981년 3월호, pp.45~46.

³⁴⁾ George R. Adams, “The Function of a University,” in William Lutz and Harry Brent., eds., *op.cit.*, pp.260~297.

練機關이라고 규정한 굴드너(Alvin W. Gouldner)는 大學이 反體制運動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⁵⁾

2) 產業社會에 대한 批判

1950년대 많은 西歐學者들의 이데올로기 終焉論은 經濟發展의 정도와 이데올로기 政治의 深度間에 상관관계를 정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60년대에 이르러 많은 批判을 초래했다. 젊은 大學生들의 反體制運動은 풍요한 產業社會에서도 이데올로기는 종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新左派思想은 소비에트 마르크스主義와 歐美的 資本主義 모두에게 대항하는 새로운 政治·社會觀을 제시했다. 이것은 社會的 갈등에서 생기는 對立에 의한 종래의 左右派의 理念體系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對立을 제거해 준 豐饒社會의 구조를 批判하려는 노력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고도로 발달한 產業社會에 있어서의 自由의 종말에 대한 항의로 나타난다.

新左派는 產業社會의 組織이 극도로合理化되었고, 이合理화가 個人의自由를 억압하는支配形태로 나타났다고 믿는다.合理的組織이 人間의自由를 억압함으로써 非理性的傾向을 중대시키고 生活樣式마저 그 영향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마르쿠체가 지적한 “抑壓的寬容(repressive Tolerance)”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날 暴力を 배제하고, 억압을 감소시켜 人間다운 社會를 창조하려는 進步勢力은 體制로부터의 暴力과 抑壓에 의해서 저지되어 있고, 그것에 반대하는 소수자에 대해서는 合法的으로 寬容이 박탈되는 반면, 體制의 政策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수용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新左派가 사용한 “非人間化(dehumanization,” “犯罪體制(Criminal System),” “公의인 殺人者(official murdens)”란 말들도 한결같이 政府와 社會의 抑壓을 表現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³⁶⁾

그러므로 新左派는 社會政策에 있어서 意識改革을 매우 강조한다. 즉 新左派運動은 官僚主義의이고 消費指向의 資本主義社會라는 조건하에 日常生活 속의 意識改革을 추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生活의 質的 變化를 理想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政治社會의 運動으로 전개하여 과격한 方法으로 社會의 革新을 달성코자 한 것이다.

3) 反戰運動과 民權運動

世界平和는 新左派의 中요한 口號 중의 하나였으며, 反戰運動은 1960년 샌프란시스코 平和行進(The San Francisco Peace March)과 全國反核政策委員會(The National Committee for a Sane Nuclear Policy)의 結成으로 구체화 되었다. 民權運動도 그러하지만 이運動도 초기에는 自由主義者, 宗教的 平和主義者, 共產主義者, 民主主義者들과 함께 活動하였다. 그들은 核武器禁止宣傳을 전개하면서 政府機關에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運動은 1959년 이후 體制 밖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學生平和同盟(The Student Peace Union)은 民防衛計劃 등에 반대하고 市民들의 시위를 유도하였다. 1962년 2월 수천명의 學生들이 백악

³⁵⁾ Alvin W. Gouldner, *The Dialectic of Ideology and Technology: The origins, Grammer, and Future of Ideolo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p.179.

³⁶⁾ William Mcpherson, *op.cit.*, p.247.

관과 蘇聯大使館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1963년 核實驗禁止條約이 調印됨으로써 비록 일시적이나마 이 運動은 雾散되었다.³⁷⁾

그러나 1965년 존슨行政府의 越南戰介入決定은 反戰運動을 再活性化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 과격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1965년에는 수백개의 大學에서 反戰聲討大會가 열렸고, 反核運動이 있었으며, 1966년에는 戰爭聲討決議文이 작성되었다. 이리하여 1968년까지 越南問題 뿐만 아니라 美國의 外交政策 전반에 걸친 批判이 있었다. 徵集命令을 거부하여 수천장의 召集令狀을 불태우는 폐모가 있었고 警察에 의해 해산된 이들의 활동은 계릴라戰法으로 바뀌어 더욱 과격하게 나타났다.³⁸⁾ 英國에서도 越南戰爭과 中東事態와 관련하여 反戰運動을 열렬히 전개하였다.

한편, 新左派의 民權運動은 白人學生들이 人種差別에 反대하는 黑人學生들의 示威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활기를 띠우게 된다. 이 運動의 主役들은 대부분 黑人知識人이었으나 新左派運動의 參加者들 중에는 學生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美國에 있어서는 주로 黑人解放運動이 民權運動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또한 가장 과격한 運動으로 지목되었지만 英國에 있어서는 女性解放運動이 더 크게 부각되었다.³⁹⁾

이상과 같은 다양한 特徵을 지니면서 전개되었던 新左派運動은 越南戰이 종식되면서 시들기 시작하였고, 70년 후반에 들어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先進美國社會의 경우 그러한 현상의 要因으로 대충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學生들의 最大 이슈가 되었던 越南戰 自體가 종식되었던 것이다. 美國이 建國이래 최초로, 그리고 초대의 耻辱을 남기면서 終幕을 내린 이 전쟁은 “偉大한 美國”만을 생각해온 美國民에게 엄청난 心的 상처를 안겨 주었다.

둘째, 景氣의 後退와 이에 따른 產業界의 人的需要減少를 들 수 있다. 오일쇼크 이후 世界經濟는 엄청난 景氣沈滯를 가져왔고, 이로 말미암아 就業의 문도 좁아지는 반면, 產業體들도 살아남기 위해 人的需要를 少數精銳로 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大學生들도 政治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게 되었으며 學問研究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세째, 美國民의 性向의 변화, 즉 進步主義의 입장에서 保守主義의 입장으로의 方向轉換을 들 수 있다. 어떤 意味에선 越南戰의 敗北는 美國民의 國論의 分裂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戰爭의 正當性과 道德性 여부를 싸고 벌인 進步的 傾向에 있던 일부 知識人들의 批判은 격렬했던 것이다. 그러나 越南戰의 終戰은 어느 면에선 美國民에게 일종의 虛脫感을 안겨 주었으며, 또한 道德主義를 내걸었던 카터의 外交政策마저 이란 事態로 무참히 깨어지자 美國民들의 性向은 급격히 右施回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³⁷⁾ William T. Bluhm, *op.cit.*, p.175.

³⁸⁾ *Ibid.*, p.178.

³⁹⁾ Pery S. Cohen, *op.cit.*, p.42.

네째, 日本의 經濟的 強大과 蘇聯의 軍事的 威脅을 들 수 있다. 世界第一을 자랑하던 美國이 經濟的으로는 日本으로부터 위협받고 軍事的으로는 蘇聯으로부터 壓倒당하게 될 지경에 이르자 美國內에서는 偉大한 美國에 대한 國民的 覺醒이 일게 되어 美國民들은 分裂과 混亂보다 安定과 團結을 택했던 것이다.

다섯째, 左傾思想에 대한 幻滅로서 심지어 이를 思想을 時代錯誤의 遺物로 認識하는 傾向마저 밀게 되었다. 美國民들은 新左派運動이 휩쓸고 간 廢虛들을 직접 보았으며, 左派分子, 특히 과격 테러分子들에 의해恣行되는 慘相들을 세계 곳곳에서 익히 보고 體驗했던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美國 뿐만 아니라 한때 新左派運動으로 몸살을 치렀던 西유럽諸國이나 日本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V. 新左派運動의 問題點

新左派思想은 現代高度產業社會의 病理와 不條理에 대한 광범한 批判과 抵抗行爲를合理화하는 理論이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그 論理와 思考方法自體를 거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批判意識을 토대로 하여 暴力으로 社會秩序를 파괴하고 社會에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新左派는 現代產業社會의 不條理에 대해 끊임없이 批判하고 社會의 不條理가 완전히 제거된 자유로운 社會로의 改革을 주장하지만, 舊社會를 代替할만한 肯定的 社會變化의具體的 計劃(Program)을 缺如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⁰⁾ 즉 그것은 새로운 社會에 대한 認定할만한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한 채 既存秩序나 體制에 대해 無條件의 全面的 攻擊을 감행함으로써 無政府主義的 性向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몇몇 新左派行動主義者들은 어떤 새로운 社會的 프로그램을 세우기 전에 우선 社會不條理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態度는 19세기 말 러시아 虛無主義者들의 浪漫的 見解에 대한 鄭愁일 뿐이다.

學生들은 批判的 思考의 研究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觀點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들 스스로 體系的인 理論을 탄들어 낼 수는 없다. 知性的 批判은 既存社會의 不道德함과 限界, 갈등을 보여 줄 수 있고, 또 이러한 批判이 널리 받아들여질 때 새로운 社會樹立을 위한 준비작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批判이 變動의 方向과 社會秩序의 形態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은 不完全한 것이 되고 단순화의 오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그러한 不完全 및 單純性의 위험을 무시하고 獨斷的 엘리트意識 속에서 既存秩序의 全面的 否定에 매달린다면 결과하는 것은 無政府主義의 破壞일 뿐이다.

둘째, 우리가 新左派運動의 理念의 肯定性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實行可能性에 있어

⁴⁰⁾ Max Mark, *op.cit.*, p.214.

서 現實과는 괴리된 너무도 理想主義의 倾向으로 치우치고 있다. 예컨대, 新左派가 이에 을로기의으로 공헌한 바가 있다면 그것은 參與民主主義에 대한 강조이다.⁴¹⁾ 만일 意思決定이 一般大衆의 水準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決定은 그것에 의해 영향받는 國民들에게는 가장 理想的으로 적합할 것이다. 意思決定의 投入, 產出過程의 關係에 대한 지나친 樂觀的 인 견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決定이 그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이념은 當爲的인 입장에서 보아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보아 모든 것이 상호複雜하게 얹혀 있는 現代高度技術社會에서는 最上部水準의 意思決定만이 達成할 수 있는 領域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高度技術社會를 좋은 意味에 있어서는 나쁜 意味에 있어서는 管理社會(managerial Society)라고 하는 理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現代社會는 고도한 管理能力과 엄청난 調整ability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實際에 있어서 參與民主主義는 하나의 價值있는 理想으로서 指導的 原理는 될 수 있으나 必要하고도 充分한 現實的 過程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新左派의 暴力を 수반한 急進性의 문제이다. 暴力과 베리는 순전히 個個人의 利己的 目的을 위한 犯罪의 倾向과 政治的·宗教的 信念을 위한 것, 그리고 精神疾患으로 인한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政治的 暴力은 民主主義社會에서도 '自由'를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그러한 暴力行使에 의해 自由 그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그러므로 民主社會에 있어서, 暴力이란 이에 을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간에 貴重한 自由의 遺產을 해치는 사람들이다. 社會革命은 暴力使用의 正當性의 問題를 제시한다. 폭력의 사용이 正當化될 수 있는 것은 暴力의 使用이 없이는 改革이 불가능한 暴君의支配에서 뿐이다. 또한 民主社會에서는 그 사회의 民主的 品質에 대한 挑戰이 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正當화될 수 있다. 그런데 新左派가 제기한 社會問題들과는 별도로 그들의 暴力を 수반한 急進化의 倾向은 後期產業社會의 弊害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新左派의 破壊性은 社會의 혼란과 함께 이에 同調했던 많은 聯合勢力들로 하여금 이들을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VI. 結論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新左派는 社會의 全面的이고 급격한 變化를 열망하는 그룹인 急進主義者들의 범주에 속하는 그룹이었다.

社會運動으로서의 新左派運動의 底流는 여러가지 急進的 이에 을로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가장 두드러진 思想的 特性은 프랑크푸르트學派의 實證社會學에 대한 批判 및 마

⁴¹⁾Ibid., p.215.

로크스主義와 프로이드 心理學의 結合에서 비롯되는 先進產業社會의 여러가지 병폐에 대한 抵抗, 破壞를 合理化하고 正當化하는 思想이었다.

이러한 思想은 구체적으로 大學內의 改革을 부르짖는 學生運動, 풍요한 先進產業社會에서의 억압된 意識에 대한 改革運動, 新帝國主義의 타도를 외치는 反戰運動 및 人種差別을 비롯한 모든 非人間的 要素의 제거와 人間解放을 부르짖는 民權運動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變化에 대한 態度는 體制內에서 그 體制의 法秩序를 준수하면서 法秩序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合法的인 절차에 의한 目的達成이라는 비교적 온전한 性向을 유지해 오다가 65년 이후 自由主義改革者들과 결별하고 극단화되어 體制의 法秩序 태두리를 벗어난 物理的暴力에 의해서 目標를 달성하려고 했다.

결국 新左派의 急進化는 처음에 그들에 동조하였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신받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代案 없는 既存秩序의 破壞는 社會의 不安을 조성하였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新左派運動 自體의 結果보다도 그들이 民主主義에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이다. 이들 新左派의 과격한 폭력의 도발로 해서 既存社會의 進步的 또는 中道的 力量 대신에 反動的 力量이 秩序守護라는 이름으로 득세할지도 모르는 가능성이다. 그때는 결코 폐쇄적인 완성품이 아니라 영원한 미완성품인 民主主義가 新左派의 抗議를 수렴하지 못하는 경직된 體制가 됨으로써 暴力對暴力의 共滅過程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現實에 대한 불만이 크면 클수록 現狀이 급격하게, 대폭적으로 변화되기 를 염망하며 결국 物理的인 暴力에 호소하게 되므로 이 運動이 지난 長期들을 體制內에 분별있게 수용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說得으로 인한 理念의 感化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金環東, “循環, 累積, 斷絕의 陣痛: 現代美國社會學의 理解,” 美國學, 第2輯, 서울大學校 미국학연구소, 1978.
2. 金宗鎬, “美國에서의 스튜던트 파워,” 國際問題 (1981.3).
3. 申一澈 編, 프랑크푸르트學派, 서울, 청람문화사, 1981.
4. 李奎浩 編, 社會科學의 方法論, 서울, 玄岩社, 1974.
5. 李容弼, 政治分析, 서울, 大旺社, 1978.
6. _____, “스튜던트 파워의 登場의 그 方向,” 國際問題 (1981.3).
7. 鄭甲吉, “歐羅巴 學生運動의 實相,” 國際問題 (1981.3).
8. 車仁錫 編, 現代이데올로기의 諸問題, 서울, 民音社, 1978.
9. Baradat, Leon P. Political Ideologies: Their Origins and Impact, New Jersey: Prentice-Hall, 1979.
10. Bluhm, William T. Ideologies and Attitudes: Modern Political Culture,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4.
11. Bottomore, T.B. Sociology as Social Criticism, 朴庚諸譯, 서울, 青史, 1978.
12. Brown, Bruce. Marx, Freud and the Critique of Everyday Life Toward a Permanent Cultural Revolution, New York and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73.

-
13. Christenson, Reo M (et al.),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 New York: Dodd, Mead & Company, 1975.
 14. Cohen, Perry S. *Jewish Radicals and Radical Jews*. London, New York, Toronto, Sydney, San Francisco: Academic Press, 1980.
 15. Gouldner, Alvin W. *The Dialectic of Ideology and Technology*,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76.
 16. Lutz, William, Brent, Harry (eds.), *On Revolution*. Cambridge,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Inc., 1971.
 17. Mannheim, Karl. *Ideology and Utopia*,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72.
 18. Marcuse, Herbert. *Eros and Civilization*. Boston: Beacon Press, 1966.
 19. ___, *One-Dimensional Ma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4.
 20. ___, *Reason and Revolution*, Boston: Beacon Press, 1960.
 21. Marx, Max, *Modern Ideologie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3.
 22. Mcpherson, William, *Ideology & Change*, California: National Press Books, 1973.
 23. Osborn, Reuben, *Marxism and Psychoanalysis*, New York: Dell Publishing Co., Inc., 1965.
 24. Popper, K.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Ltd., 1966.

A Study about the New Left Movement

Yang-Hyuk Kim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Modern society has established high industrial one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ique, while there came out a pathologic appearance by high level of systematization and complexity. Therefore, how to avoid such a danger for manlike living has appeared as a matter of an intellectual's concern today. Especially, this problem for a left intellectual becomes more important thing. Because they, as past history have proved, not only have experienced that a prophesy that non-class society which Marx had said would be introduced had gone astray, but Soviet's communism which was quite different from their ideals, they must have groped a new ideologygic tradition which unsettled western industrial community and Soviet's communism society at the same time.

This current has come out as a new left movement in the Western Europe and Japan, and like places including America from 1960's to early 1970's. That is, new left ideology unsettled all the Marxism of the Soviet and the capitalism of Europe and America, and criticized structural inconsistency of the modern richness society itself. And it became a stepping-stone of anti-establishment movement attempting reform of politic, social order with a radical action.

But the problem is that they forgot that such a new left's ideology had been formed by the pathologic phenomenon of high level industrial society and tried to introduce it to actuality of Korea. I think that is very dangerous thing. Especially, when we think that new left ideology gives a mystic attraction to the sensitive young students and the intellectuals without offering a recognizable image against new society, and when we saw that it let them taking radical action against the existing system and government, we can say that we are in need of having the right recognition and a critical eye for this.

This paper is aimed to the following points:

The first, generally I'll investigate a specific character of a radical ideology in the

interrelationships of the various ideology. And the second, with the foundation of such a preliminary knowledge I'll study how the radical nature of new left ideology was caused from the union of Marxism and Freudian psychology, and I'll make plain how the criticism about the early positivism sociology was. The third, I'll check up such a peculiarity of the radical movement in the side of comparison with the old leftism and in the side of an aspect of the movement deployment. The fourth, I'd like to point out what the problem resulted from the radical nature of the movement is.